

# 속 기록

- 회의명 : 제383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시 : 2024. 10. 25(금) 13:57~16:24
- 장소 :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원장 (인)  
구문모 위원 (인)  
김미라 위원 (인)  
김진각 위원 (인)  
배은주 위원 (인)  
서승미 위원 (인)  
성기숙 위원 (인)  
이훈경 위원 (인)  
왕치선 위원 (인)  
정갑영 위원 (인)  
홍성태 위원 (인)
- 불참위원 : 장미진 위원

##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3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2024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와 보고안건 3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공연예술팀 황원우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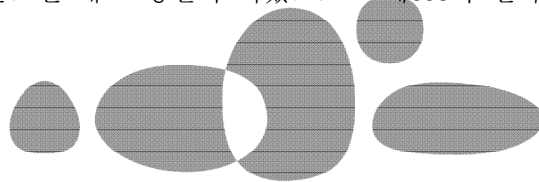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전체 위원 12인 중에서 현재 10인이 참석하셨습니다. 배은주 위원님은 오고 계십니다. 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에 개최한 제382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어서 2건은 원안의결 그리고 2건은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4.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예.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81호 2024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4년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4조 심의위원회 자격 및 선정요건과 지원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의거해서 심의위원 후보단 충원 대상과 운영개선(안)을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해에 전면 재구성한 심의위원 후보단을 운영한 결과 2024년 공모심의를 운영하기에 심의위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해당 의견에 따라서 심의위원 후보단을 충원하기로 지난 제378차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해당 충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았고, 그 이후인 8월 8일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를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분야 개편 및 기존 후보단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임 위원님들이 합류하심에 따라서 후보단 충원 계획을 다시 보고드렸고요. 후보단 선정위원회는 8월 31일에 장르별 위원님과 배운주 위원님 등 총 6인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곽은미 사업본부장님께서 성희롱·성폭력 혹은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 예술인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분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검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장르별 세부 분야 개편, 기존 후보단 세부 분야 또는 지역 변경의 건 그리고 예비선정위원회 참여 활동 정지 해제 그리고 현재 후보단에 포함되어 있으신 신임 위원 2인에 대한 활동 정지에 대한 건을 보고안건으로 보고하였고요. 심의위원 후보단 충원대상 결정 그리고 한시적 제한조치 적용기준 재검토 그리고 심의위원 모니터링 결과 환류기준 결정 그리고 기존 후보단에서 예비 정지되어 있던 분들에 대한 해제 또는 상태 유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논의안건 중 심의위원 후보단 충원대상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이 좁혀지지 못해 심의위원 후보단 충원대상 결정만 미결사안으로 남고 나머지 사안은 의결 혹은 보고로 완료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전담심의 참여에 대한 안건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어 지난 전체회의 때 의결됨에 따라서 비상임위원의 전담심의 참여 세부방향은 전담심의제 추진방향과 연결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에 비상임위원 전담심의 참여 세부 방향 논의 2차 회의 때 마지막 검토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밝혀 주셨고요. 2025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담심의제가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장르별 충원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장르별 차등을 두고 비상임위원이 결정하기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서 연극, 뮤지컬, 무용 분야의 인원은 축소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주셨습니다.

심의위원후보단 충원 대상 결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각예술, 전통예술, 문화일반(다원예술)은 충원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요. 그 사유는 지금 전담심의제가 확대·추진되기 때문에 심의위원 구성에서 당초 검토했던 방향과는 달리 후보단 인원이 부족하지 않고 현재 후보단 규모를 유지해서 한번 더 심의를 운영해 보고 충원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충원이 되는 분야는 문학,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분야입니다.

문학은 문화일반분야 6명, 연극·뮤지컬은 10명, 무용은 11명, 음악분야 8명으로 총 35명이 충원되어 당초 666명 중 35명을 추가하여 701명으로 구성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결이 시급하여 충원대상에 대해서 실제 후보단에 참여하실 것인지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충원 대상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려 확인된 사항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축소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하여 두 번째 보고를 드립니다.

당초 추진계획을 보고드릴 때도 보고했던 사항인데요. 내부적으로 매년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방향 중에서 미투 혹은 블랙리스트 관련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 조치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작년에 정리된 666명 안에 관련 대상자는 이미 다 제외된 상태였고, 이 제한 조치하는 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서는 중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에 정리되지 못하여 남아 있는 분들은 블랙리스트 관련으로 본인이 인정하셨던 1인과 나머지는 해당 기간 기관장으로 계셨던 분들 4인을 포함해 총 5인이 남아 있었고요. 미투 관련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미투 관련해서 이 제한 조치가 없더라도 지원심의 운영규정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촉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결과 환류 관련해서는 외부인사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심의가 종료되고 사무처에서 해당 위원을 평가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환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안건으로 올렸고 전체 평가결과 중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최종 5인을 1년간 예비정지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무처에서 안을 올릴 때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1년 간 예비정지를 하고 이분들의 심의참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부정행위 조사 착수 관련해서 예비정지가 되었던 1인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심의위원 후보단 666명을 확정된 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조사가 착수된다고 통보를 해 왔고 그에 따라서 해당 인원에 대해 예비정지를 해 놓은 상태였는데요. 권익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실제로 조사 착수 없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분은 다시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예비정지 상태를 풀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장르별 세부 분야 개편은 당초 계획에서 보고드렸던 대로 후보단 현원이 0명이거나 심의위원 구성에 적합하지 않은 세부 분야를 개편해서 후보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당초 56개 분야로 나눠져 있던 것을 45개로 축소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현원이 0명인 세부 분야 삭제, 그리고 심의 시 활용되지 않는 세부 분야 조정, 그리고 국제교류 분야는 장르별 기획·제작 분야를 통합 관리 그리고 문화일반 내 문화복지나 문화평론 등 심의 시 활용되지 않는 분야도 삭제하여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은, 적합한 세부 분야로 해당 외부 인사를 이동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존 후보단 세부 분야 또는 지역 변경은 당초 666명에 대해서 그분들이 신청하신 세부 분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전수 검토를 다시 해본 결과 실제 장르별 적합한 분야가 있음에도 그냥 문화일반 분야로 분류되어 있는 등 재분류 과정을 꼼꼼히 하지 못했던 것이 확인되어 이것을 다시 검토 후 적합한 분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하여 전체 666명을 검토해서 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 선정위원회 참여 위원 활동 정지 해제는 작년에는 선정위원회 전에 장르별로 예비 선정위원회를 두었는데 그 예비 선정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예비정지를 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지 상태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비상임위원이신 왕치선 위원님과 구문모 위원님이 작년 666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의위원 후보단은 외부인사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 후보단과 구분해서 시스템상 활동 정지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5번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최종 현황을 보시면, 문학 분야는 당초 139명에서 145명, 시각예술 분야는 충원 규모가 없고요. 연극·뮤지컬 분야는 10명이 충원되어 116명, 무용 분야는 89명에서 11명이 추가되어 100명. 그리고 음악 분야는 최종 112명, 전통예술 분야도 충원이 없고 문화일반분야 89명으로 해서 총 701명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 이외에 충원대상의 명단 그리고 세부 분야 조정, 관련해서 논의했던 회의자료는 붙임과 별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선정위원회에 대부분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셔서 안을 만드신 것인데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미 다 공유가 된 부분이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성기숙 위원 :**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오랜 진통 속에서 논의결과가 모아진 것에 대해서 사무처도 그렇

고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8월 30일 오전 회의에서 배우자가 미투인 건에 대해서 김지영 팀장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날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명단에서 아예 배제된 채 명단이 왔는데요. 그때 제가 일부 이해는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제한 조치 5년도 그날 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해지를 했거든요. 그와 함께 미투 문제도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인 경우였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것에 대한 소명기회도 없었는데 미투라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심의위원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후보단에서도 이렇게 배제가 된다면 현장 예술가로 계신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은가? 배려라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기한을 논의한다거나 이것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김지영 팀장님께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야죠.

**성기숙 위원 :** 안을 낸다거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논의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해 주시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일단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여기에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실무진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을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를 못 했을 겁니다. 향후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른 건이나 기타 논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기타 논의로 발의를 해서 말씀을 하도록 하시고요. 그러면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정갑영 위원 :** 잠깐만요. 보니까 장르는 전문성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세부 분야를 삭제하고 다시 적합 분야를 변경한다는 게 있네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데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부 분야가 또 바뀌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앞에 내용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붙임2에 세부 분야 조정 명단을 확인하시면 당초 어떤 분야에 있다가 전문 분야 혹은 상세 장르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갑영 위원 :** 변경 사유는 옆에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을 보면 문화일반의 문화복지로 되어 있다가 문화일반의 예술경영정책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냐고요. 사회복지 전공을 쪽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경영이나 정책을 했다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일단은 예를 들어서 성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실제 무용 분야에서 활동 중이신데 그냥 문화일반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내고 사무처에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했었기 때문이에요.

**정갑영 위원 :** 제가 말하는 것은 무용이 아닙니다. 문화일반에서 문화복지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일반에

서 예술경영정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사회복지를 전공했던 분이 예술경영정책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문화복지로 되어 있던 분이 몇 분이 안 되었고, 그분들의 심의참여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 문화복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심의위원 추천 과정에서 해당 분야는 명단조차 보지를 않고 추천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 분야를 줄여서 포괄적으로 그 명단이 위원님이든 사무처에서든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분야를 좁혔다고 보시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좁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맞지가 않는 걸로 보인다는 얘기죠.

**정병국 위원장** : 좁힌 것 자체가 심의위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맞는 것이냐? 라는 그런 취지죠.

**정갑영 위원** : 예, 맞습니다. 그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는 거죠.

**김진각 위원** : 27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분은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술경영하고 예술정책 쪽으로 가면 안 되는 분이고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쪽으로 갔는지를 보고 저도 좀 의아해 했는데요.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어떻게 판단을 해서 이쪽으로 갔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문화복지 분야라는 게 사실상 심의에 활용되지 않는 세부 분야로 남아 있어서 해당 분야가 아예 개별적으로 빠져 있으면 그 분야에 계신 분들 자체를 심의위원 구성할 때 명단 검토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열람하는 분야로 들어가 계셔야 이력을 확인해서 추천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통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분야에 적정하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문화복지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기회가 없더라도 그대로 나뉘어야 적정하지 않은 사람을 이쪽으로 넣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심의를 했을 경우 그 이후에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대로 나두면 되죠.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분만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일반에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누가 봐도 변경 사유와 현재 있는 전공과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의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심의위원 명단을 발표할 때 예를 들어 ‘김지영’ 이라고 하면 김지영이 현재 어떤 현직에 계시는지만 발표가 되지 심의위원 후보단 내에서 예술복지 등 세부 분야 카테고리라는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것을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 추천할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럴 것 같으면 왜 굳이 세분화를 해서 바꾸냐는 거죠.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만, 문화복지 분야가 현재 사업구조에 적합한 사업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결국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활용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666명 안에서 심의에 참여하실 수 없어도 빠지는 않기로 당초에,

정병국 위원장 : 빠지 않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화복지로 해서 수요가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갑영 위원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왜 굳이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죠.

김진각 위원 : 2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갑영 위원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래 원안대로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괜히 이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문화일반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억지로 아닌 것을 다른 분야에 규정해 놓는 건 그 사람을 선정하려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갑영 위원 : 그분들한테도 못할 짓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그러니까 기존 문화일반 분야가, 타 장르로 치면 6~7개 세부 분야가 있었는데 문화일반 분야는 13개로 더 상세하게 나눠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6~7개로 축소 조정을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복지인데 예술경영정책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영역을 세부 분야로 두고 다시 그 분야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복지만이 아니고요. 다른 기존 장르에서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경영정책은 누가 봐도 분명한 영역이잖아요. 시설을 운영해 봤다든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로 옮겨 놓으면 그 사람한테도 못할 짓이라는 얘기죠.

정병국 위원장 : 정갑영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신 대로 문화일반 쪽을 이렇게 세부 분야로 해서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실 명단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세부 분야별로 어떤 분야에 몇 분이 계시는지 현황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활용도가 예술위에서 없는 분야가 1명 혹은 0명으로 되어 있는 현황표가 공개되었을 때 문의가 몇 차례 온 적이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문화복지도 그랬고요.

정병국 위원장 : 문화복지는 여기에 문화복지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있는데 심의위원으로 모신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왜 모시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실제 문화복지 분야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혹시 기회가 닿으면 다른 심의에 적합한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정확한 분야로 되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임의적으로 바꾸면 다른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문화복지라고 하면 문화복지에 놔두고 “선정이 왜 안 되었냐?” 라고 하면 “문화복지 분야의 사업이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억지로 전문 분야가 아닌데 거기에 끼워서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의도가 갖고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괜한 오해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러면 당초에 문화복지로 계셨던 분들이 한 분은 화가고 한 분은 뮤지컬음악 쪽에 계신 분이요 다른 한 분이 27번인데요. 사실 문화복지에 적합한 분이 27번 분 밖에 안 계셨기 때문이에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왜 처음 신청할 때 그렇게 신청을 한 건가요? 뽑은 건 또 왜 그렇게 뽑고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작년에는 신청서를 받은 대로 세부 분야도 생성하고 원안 그대로 수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처 검토 작업을 통해서 적합한 분야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제가 직접 확인도 했는데요. 다만, 그 작업이 작년에는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로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안 바꾼다고 해서 심대한 타격이 있거나 심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가세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러면 말씀하셨던 27번과 관련해서 그 이외의 상황도?

정갑영 위원 : 27번만이 아니라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문화일반 분야를 원안대로 가라는 거죠.

정갑영 위원 : 그 아래도 보세요. 문화평론으로 되어 있는데 예술경영정책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신청한 대로 해야죠. 그렇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저 같은 경우 전통예술로 되어 있던 교수님 한 분을 무용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동의해서 옮겨왔거든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하신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결국 심의위원을 우리가 후보로 만들 때 조금 더 다양하게 고려하기 위한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여러분들이 신청을 받을 때 명확하게 했어야 되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면 얘기가 됩니까? 그것은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런데 문화일반 분야 외에 장르별로 상세 장르가 변경된 경우는 사실 사무처 각 사업팀에서 확인해 봤을 때 그분이 더 주력으로 활동하신 분야로 변경된 경우가 더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연극·뮤지컬의 연출 분야에 본인이 신청하셨거나.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처음부터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신청할 때 확인을 했어야지 다 결정을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선정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떤 분야로 다 선정을 한 거잖아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한 거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본인이 최종적으로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지 당사자는 모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러분이 다 결정한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신청서에는 쓰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한 대로 받아들여졌는지 재통보를 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그냥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선정·위촉 되었다.” 라는 정도만 안내가 나간 상태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무너져요. 처음부터 신청받을 때 그 분야를 놓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요.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에 각자 신청서를 놓고 심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분야의 심의위원이 되겠다고 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신청을 했으면 그 분야의 심사위원 후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서, 예를 들어서 A분야로 신청했는데 B분야로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만, 신청하실 때 연극·뮤지컬 분야의 뮤지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는 상세 장르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몇 분의 작가들은 연출 분야로 신청하셔서 사실은 작곡가지만 연출 분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동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볼 때는 전통에 신청을 했다가 무용으로 옮기는 것은 설명을 들으니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줘서 옮겨서 온 상태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오늘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하면 원위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 절차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분야를 막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만약 그것을 바꿔야 될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정했을 때는 A분야라고 해서 이것을 검증해서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검증절차가 다 무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야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더 잘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잘할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이미 다 겪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넣고 저쪽으로 막 넣으면 어떻게 해요?

배은주 위원 : 질문을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배은주 위원 : 우리가 풀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었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작년에 만들 때 사이트의 조작적 정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이미 사이트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얘기는 조작적 정의, 사이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 위주의 분류와 실제 심의 참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팀장님은 시스템 조작적 정의의 한계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셔야 이게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그 사이트는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를 들어서 연극·뮤지컬, 전통예술 장르별 안에서 하위 세부 분야가 바뀌는 것은 각 장르 위원님이 보셨기 때문에 명단 변경내역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문화일반 분야만 원안으로 해서 처리하면 어떨까요?

서승미 위원 : 그게 좋겠습니다. 전통예술 쪽은 확실하게 변경 사유가 되어야지 심사할 때 풀 구성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 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변경되고 나서 심의위원 후보단 시스템에 대해서 등록된 내용을 업데이트 하라고 당사자들에게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때 열람하시면서 소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동의도 안 받고 그냥 통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동의를 받아야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변경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렇죠. 동의를 받지 않고 “나는 A분야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B분야로 가서 하세요.” 이 얘기가 되나고요. 동의를 사전에 받는 절차를 가져야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실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본인이 전통예술 혹은 음악 등 더 큰 장르 범위 안에 소속된 정도로만 인지하시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 주먹구구식의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풀이니까 거기에서 임의로 뽑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A분야로 넣었어요. 그런데 B분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통보를 할 때 “이 분야로 해서 심사위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런데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모실 때 음악 분야 심의위원으로 모신다거나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으로 모신다고 하지 음악 분야의 작곡으로 모신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세부적인 것을 뭐 하러 바꾸냐는 얘기죠. 그냥 놓고 하면 되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것은 저희 사무처와 위원님들 참고용의 세부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이런 서류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 “나는 이렇게 신청했는데 위원회가 임의로 막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신뢰가 실추된다니까요. 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50년을 넘게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결정되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줘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죠. 신뢰가 하루아침이 만들어지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축되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작년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얘기하는 건 행정편의적이라니까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래서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처 못본 상황을 개선하는 관점에서 이 작업을 한 건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개선하면 당사자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바꾸지 말고 원안대로 해 놓고 선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확인해서 하는 것과 아예 전문분야를 바꿔놓고 통보하는 건 다르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알겠습니다. 동의절차를 어떻게 밟을 수 있을지, 시스템상인지 오프라인상인지

그것은 사무처에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가야 된단니까요. 원안대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문화일반 분야만 원안대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진각 위원** : 47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47번은 연극·뮤지컬이었다가 일반으로 넘어왔는데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런 경우에도 그냥 원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문화일반 분야의 이동은 원안으로 해서 다시 재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문화일반은 우리 문화일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견이 없는 부분들은 이견이 없는 대로 안을 의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저도 15번에 예술경영정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에 계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전공이 미술이라는 말입니다. 미술전공인데 정책 쪽으로 가 있어서요. 현재 기관장이라서 그런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런데 12월 16일이면 임기가 끝나서. 차라리 원래 본인의 전공 분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문화일반 다원 쪽에 계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과정에서 세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놓은 사항이요. 여기에 올릴 때 “A라는 사람은 어느 분야다.” 라고 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로 바꾼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과정과 절차를 밝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알겠습니다.

##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은 2024년 공모사업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세부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서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이어서 비상임위원 전담심의제 참여 세부 방향 논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82차 회의에서 비상임위원들께서 전담심의제에 참여하는 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 때 김진각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추가적인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셔서 위원님들 총 9인을 모시고 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회의 때 정확하게 의사 발언을 안 해 주신 분들, 실제 그 안건을 발의하시거나 장르 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동참 의사를 밝혀 주셔서 총 9인이 되었어요. 1차, 2차 회의를 거쳐서 정리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전담심의위원 후보자 구성 방법도 위원님들 간 치열한 논의를 하셨는데 당초 사무처와 위원님께서 각 1에서 1.5배수로 총 3배수 내외로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장르별 심의 참여 의사 및 전담심의위원회 구성 규모는 위원님들께서 큰 고민 끝에 최종적으로 의사를 밝혀 주신 것은 다원예술의 배은주 위원님, 무용의 성기숙 위원님, 음악 분야 왕치선 위원님이 참여해 주시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일단 본인이 참여하는 경우 해당 전담심의위원회 구성규모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본인포함 7인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께서 5인 그리고 왕치선 위원님 5인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상임위원별 전담심의 참여 사업(안)은 해당 회의 종료 후에 별도로 의사를 확인한 결과 다원예술 같은 경우 배은주 위원님께서 다원예술 분야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주셨고요. 무용 분야 같은 경우 성기숙 위원님께서 기존에 운영되던 현황을 더 살펴보신 후에 결정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악 분야 같은 경우에도 왕치선 위원님께서 청년예술가지원사업부터 먼저 의견을 주셨는데 최종 결정은 지원신청 접수현황을 살펴보고 전담심의관과 논의해서 의견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전담심의관님들께 어떤 사업에 들어가실지 당초 안은 창작산실과 창작주체의 심의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심의관님들은 일단 창작주체 심의를 우선으로 참여하는 것이 내부(안)이었는데요. 그 사항은 추가적으로 논의하여 위원장님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상임위원의 심의 참여사업 심의결과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해당 위원님들께서 참여하실지 혹은 제척을 하실지에 관한 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을 예시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 의견이 상이하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매듭을 짓지는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심의위원후보단 선정위원회 미결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는 앞서 의결안건으로 보고드린 대로 장르별 위원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셔서 해당 분야별로 심의위원 섭외명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사항은 당초에는 이번 전체회의 전에 전담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서 이번 전체회의 때 그 명단을 보고드리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정이 좀 지연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에 참여하실지까지 결정해 주시면 다음 주 한 주 동안 심의위원후보단에 대해서 세부 분야 변경에 대한 본인의 동의 그리고 신규로 충원되는 분들에 대해서 후보단에 참여할지에 대한 동의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이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심의위원후보단 구

성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 심의 위원으로 충원되시는 분들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사무처에서 전담심의위원회에 사업별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안을 짜서 위원님들께 한 번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명단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안을 장르별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천 전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사업에 참여하실지까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보시면 지금 공연예술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3월, 4월에 외부 대관까지 포함해서 쇼케이스 실연심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2월 말에 발표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의일정을 조금 연기하는 것까지도 고려했지만 공연예술창작산실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부 의견이 있어서 일정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께 논의를 드릴 텐데요. 일정 확인 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해충돌방지 관련해서도 내부에 있는 규정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더 살펴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참고자료로 넣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가 보면 4번만 확정이 안 된 것이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 상에 보면 현장에서 가장 애로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이걸 조기에 결정해 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장소 대관이나 모든 준비를 하는데 너무 빠듯하고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능하면 발표 시기를 단축시켜서 미리미리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결과 발표는 다음 전체회의를 기다리지 않고 전담심의위원들이 사무처와 협의해서 다 선정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해당 위원회에 선정된 위원들이 바뀌거나 여기에서 알지 못하는데 논의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결정되면 결정된 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의결이라도 해서 더 당겼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러시죠.」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빠듯하게 12월 30일에 의결하는 것은 현장 예술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최대한 당겨서 미리미리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12월 15일 이전에는 발표할 수 있게 하세요. 자꾸만 늘리지 마시고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일단은 저희가 늘 상 12월 30일 내외로 전체회의가 잡힐 때 한 번에 의결을 올렸는데요.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것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마지막 심의 종료일자에 맞춰 빨리 서면의결로 진행하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안건을 좀 많이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모아서 올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의가 끝나면 한꺼번에 모았다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려고 하지 말고 바로바로 사업별 심의가 끝나면 서면의결을 해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 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제가 놓쳤습니다. 사무처와 위원하고 심의위원 추천 비례가 저희 장르는 아까 3대 1이라고 했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저희 지침상 장르별 위원과 사무처가 1에서 1.5배수 내외로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가 1인, 위원님이 2인으로 추천해서 최종 3배수가 될 수도 있고요. 1인, 1인으로 해서 2배수 내에서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같은 맥락인데요. 아까 김지영 팀장님이 3배수라고 말씀하셔서요. 지금 정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1에서 1.5배수 내에서 장르별로, 저희 무용분야는 공연예술팀과 논의된 게 있어서요. 하여튼 각각 1에서 1.5배수 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송시경 사무처장 : 예,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2배수로 할지 3배수로 할지를 정하시는데 예를 들어 1:1로 해서 2배로 하든지 1.5:1.5로 해서 3배로 하든지 최종적인 부분은 합의가 아니라 협의의를 해서 정하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비상임위원 심의 참여사업 심의결과에 대해 전체회의 의결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사실은 여러 진통 속에서 저희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전담심의위원 참여의 건이 의결되었고 규정도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TF 회의에 일요일까지 할애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열띠고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논의를 해서, 오늘 김지영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여러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에 도달한 내용입니다. 사실 심의와 의결을 통합해서 세트로 갈 것인가? 이것도 1차, 2차 회의에서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왔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통합이요?

성기숙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어떤결요?

성기숙 위원 :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하는 것으로요. 오늘 또 재논의가 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승미 위원** :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내용이 이미 첨부됐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심의에 참여한 위원이 심의위원을 추천하고 결과 의결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감을 담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즉 말하자면 비유를 간단하게 할게요.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경찰도 하고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는 겁니다.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판결까지 한 사람이 논스톱으로 내린다는 것에 대해 과연 공정하게 느낄 것인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현장에서 심사 과정이 굉장히 공정하고 위원에게 권력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게 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위원들께서 “책임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감을 했잖아요. 김미라 위원님과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책임감을 통감하고 심의방법에서 그렇게 한번 참여하는 것은 좋다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고 세 가지를 통합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완충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라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위원회의 책임을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차이인데요. 저는 마지막 의결까지 비상임위원이 한다는 건 정말 큰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했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 결정을 했고 합의가 됐고 심의가 끝나면 여태까지 심의결과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내용이 바뀐 적이 없어요. 다 인정을 해 드리는 겁니다. 해당 사업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바로 서면의 결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위원회가 얼마나 공정성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해당 위원님께서 전담심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의결에 참여 안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는 게 나은 것인지? 의결될 게 안 된다가나 부결될 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다만,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결과를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지를 우리 위원회가 이제 보여줘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까지도 이렇게 고려했다.” 라는 명분을 만들어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나눠 주세요. 심의에 참여했던 우리 위원님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참여를 안 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적으로 전부 다 의결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김진각 위원** :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의결이라는 게 대단히 형식적이었고 올라온 안건이 부결되거나 이런 적은 단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순탄하게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심의를 직접 할 경우하고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럴 경우 만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심의결과가 의결안건으로 올라왔을 경우에 이것을 이전처럼 일반적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개별 장르로 심의를 했던 위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전체의 책임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심의를 한 위원은 의결에는 관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개별적인 사업을 일일이 들여다보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안 하는 위원들 그리고 의결을 해야 하는 위원들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명분으로 분

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과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상반된 견해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지금 언뜻 드는데, 두 분의 말씀이 상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김진각 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전통 속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서 전담심의를 위원이 참여한다는 것을 의결하고 규정 개정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1차 TF 때는 장르위원 대다수가 전담심의에 참여하신다는 의견을 주셨고 2차 TF 때는 딱 절반. 1차에서 참여하신다면 위원님들이 불참으로 의견을 내셔서 지금은 50%로 참여와 미참여로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죠. 아까 위원장님께서 명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한다.” 라고 의결하고 통과시키고 개정했을 때의 입장과 지금 불참을 한다고 했을 때 상충되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명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하나는 우리 김진각 위원님이 각 장르에서 전담심의를위원이 참여한 심의의 결과치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때 면밀히 봐야 해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해당 장르위원들이 자기 분야의 전담심의를 결과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른 분야에서 심의한 전담심의를 결과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과연 그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문화일반 분야 위원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위원이 12명인데 문화일반이 7명이고 심의의 전체적인 양으로 보면 사실 장르의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심의 카테고리도 그렇고 예산도요. 그러면 장르와 관계가 없는 문화일반 위원분들이 과연 고도의 전문성과 미학적 가치판단의 안목이 필요한 분야를 의결할 때 이미 심의된 것을 갖다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고 했을 때 어떤 다른 결과치가 나오는 것은 사실 넌센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진각 위원 :** 작품을 심의해서 선정하는 기준은 전문성이 100%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이것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원이고 공공재원은 사적인 재원과는 달리 봐야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전문성의 가치로 전문성만 가지고 들여다봐서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나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작품들을 보는 국민, 일반관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크로스 심의가 필요하다.” 문화일반의 관점도 봐야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전문성 관련된 것만 따져서 “전문적이지 않은 문화일반이 어떻게 평가를 하나?” 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넌센스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기숙 위원 :** 문화일반이 장르심의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논의가 깊이있게 되었고요. 문화일반 위원님들이 주장을 하셔서 문화일반 분들이 장르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결로 1차, 2차 TF에서 이미 논의가 끝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각 위원 :** 저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업에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고 밝힌 적이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요. 성 위원님은 우리 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되면서 “장르위원이 6인인데 왜 문화일반위원을 6명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공공성이라든지 예술단체의 경영적인 측면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국민적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예술적 감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일반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검증해 달라고 하는데 대략 지금까지 봐서 이분들이 어떤 작품성을 가지고 터치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장르의 심의위원들께서 다 해온 것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의결을 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올까?”, “이런 문제는 없을까?”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건 무조건 ‘아니다.’,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국민들에게 또 예술인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했느냐 안했느냐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최선일가의 관점에서 서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옳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생각의 차이인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좁혀 주셨으면 합니다.

**구문모 위원 :**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문화일반 쪽에서 장르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은 TF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얘기한 이유는 물론 공공성이죠. 기초예술은 다 공공성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작품을 제작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작품을 어떻게 제작하느냐는 예술가의 몫이고 공공성이라고 해서 문화일반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일반 위원은 장르의 분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정을 할 때 구성원이나 객관성이나 보편성 등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장치만 된다고 하면 장르 쪽에서는 얼마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의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것인지, 왜 참여하게 대립이 되는지는 제가 참여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르가 n분의 1이고 문화일반은 더 많죠. 그런데 장르가 심의했다고 해서 의결에 빠진다. 의결을 하더라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대다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아무래도 장르 쪽에 있는 사람이나 직원들이 얘기하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화일반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상 큰 문제가 없다면 의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지는 모르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심각하지 않아요. 심각하게 받아들이니까 심각한 거죠.

**구문모 위원 :**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작품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심사에 참여를 하지만 제가 쪽 분석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인을 하고 끝냅니다. 그러면 분석을 하고 상대방에게 주고 “당신이 사인을 해라.” 그러면 그 사인에 대한 결과는 사인을 한 사람이 집니까? 내가 책임을 집니까? 사인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결과는 위원회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지 개인 위원님들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전담해서 결과물을 내지만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12인의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위원님들은 내가 직접 그 분야 심의를 하지 않았어도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과정 속에서 심의 결과를 가지고 엄청나게 논란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거의 100% 올라온 대로 의결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바뀌는 것은 의결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밖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명분을 주지 말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우리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셨던 안 들어오셨던 한 분이 더 들어왔다고 해서 전체위원 12인 중에서 12분의 1인데요. 의결을 하는데 지장을 줄 수는 없어요. 의미는 없는 것이지만 심의를 직접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에 직접 참여한 위원님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대외적으로 하게 되면 “저 사람들이 안전장치도 만들었구나.” 라는 우리의 명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크게 놓고 위원회 이름으로 나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고, 사실 내부 과정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 신뢰를 못 하나요? 별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왕치선 위원** :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번 치열하게 얘기를 했지만 각각 위원님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거나, “그렇게 합시다.” 라고 결론이 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분 위원님들은 “안 들어가시겠다.” 라고 하셨고, 저하고 성기숙 위원님은 “들어가겠다.” 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마지막 관문이 심의 결과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들어가고 싶고 다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절충안을 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각각 장르별 특징을 배려해 주셔서 실험적으로 2개 장르는 다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해 보고 1년 후에 이 부분의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아니면 축소하든지 하는 게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은 너무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시니까 차라리 지난번에 서승미 위원님께서 처음에는 심의에 들어가시겠다고 하셨다가 철회를 하셨죠. 혹시 성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마지막 의결에 다른 위원님들의 배려를 믿고 저희가 의결에서 빠지는 것으로 하는 대신에 각 장르 담당 위원님께서 심의 프로세스에 원래 하시겠다고 하셨던 대로 다 같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 여쭙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왜냐하면 전담심의제도가 2015년 이후에 다시 부활해서 도입을 하는 거잖아요. 과도기이고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도입하면서 장르별로 들어가는 %가 5:5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개 분야는 안 들어가고 3개 분야는 들어가구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하는 것도 저희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각예술 분야나 전통예술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 저는 그 장르의 결과치가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 있게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 예술적인 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말씀하신 게, 어차피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지막에 의결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의결을 해야만 저희가 공모 결과발표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의결을 하니깐 우리가 다시 제도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다양성도 존중하고 어느 정도 장치도 마련하여 보장해 드리는 차원에서, 마지막 의결에 어차피 저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에는 참여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마지막 의결권을 배제하고요. 마지막 전체회의 때 어차피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2안, 저도 다원예술에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저도 다원예술에 들어가지만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처음이라 50%로 창작주체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왕치선 위원** : 1안이 뭐냐 하면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서 1~2개 장르는 위원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 장르는 원래 정하신 대로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요. 그러니까 장르 특성을 고려해서 실행하는 게 한 가지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장르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시되 의결에 다 같이 빠져서 같이 움직이는 게 두 번째 안입니다.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 들어가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 논쟁이 한없이 갈 것 같아서요.

**성기숙 위원** : 지금 왕치선 위원님의 1안과 2안은 사실 진전이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TF에서 안 들어가신다고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논의는 심의와 의결을 통합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안은 논의된 것에서 퇴보된 것이고요. 그것은 이미 1차, 2차 회의 때 다 결정된 것이라서 앞으로 나가는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사무처에 여쭙고 싶은데요.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건 없어요. 지금 만드는 거죠. 규정은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심의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되었고요. 또 하나는 2005년에 위원회에

서 민간자율기구인 위원회로 전환되었고 12인 위원회의 가장 큰 권한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 최종 의결권입니다. 의결에 참여하냐 안 하냐는 위원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인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난번 1차, 2차 회의 때 왕치선 위원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 장르위원으로 생각할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밭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와 검증과 비난까지 한 몸으로 받으면서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가겠다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존재를 확인받는 의결권인데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논의가 된다는 것은 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으로서 고유권한으로서 갖는 의결권을 보장해 주셔야죠. 지금 가시밭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다른 위원님들은 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의결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밖에서 공론화가 되었을 때 과연 문화예술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와 활동은 무엇일까?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인 위원으로서의 의결권을 고수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의결권은 있으세요.

**성기숙 위원 :** 저의 권한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서승미 위원 :** 무용 쪽 현장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요. 지금까지 심의제도에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정말 가시밭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너무 존경해요. 그러나 그 가시밭길이 그 장르만 되면 되는데 모든 장르로 퍼질까봐 그리고 위원회가 가시밭길 속에 들어갈까 염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처럼 책임감이 있으신 위원님만 계시면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장래까지 우리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는 게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을 때 나쁘게 생각해서 그 권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견장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짜 위원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똑같이 바뀌어서 생각한다면 어떤 새로운 위원님이 무용으로 와서 그분이 세 가지를 다 한다는데 그 위원님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도 막을 수가 없다면 그게 제도일까요? 그런데 그 제도를 우리가 처음 시도하려고 하니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숙 위원 :** 지금 서승미 위원님 말씀에 저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님의 생각을 표현한 거니까 그 생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찍지는 않겠지만 장르의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장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지원이 작동되기 위해서 역할을 하러 이 자리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통예술인 서승미 위원이 무용 분야의 불공정이라는 게 밖에서의 여론 등이 다른 장르까지 퍼지거나 확산된다는 우려를 하시는데요. 제가 위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두 달 동안은 준비 작업이고 제가 심의에 참여해서 무슨 불공정을 작동시키고 저지른 결과치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심대하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하면 되는 문제를 무용 분야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확산된다는 전제가 어디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요. 그다음에 10월 6일인가요? 우리 전체회의 때 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은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만약에 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할 경우는 블랙리스트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원이 전담심의에 참여하면 불공정을 저지르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으면 공정한가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상당히 궁금했구요. 그 후 TF 회의 때도 제가 그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의 큰 변곡점에서 우리가 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다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 와 있고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예를 들어 상부 기관이나 정치권 등 외부로부터의 외압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스스로 막아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불공정을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전제하에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심대하게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3일 자로 이 자료를 배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곱 가지 자료 신청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공정하게 심의에 임해 보기 위해 연구와 리서치 작업을 하려고요. 위원장님 자리에도 혹시 있나요? 그리고 우리 서승미 위원님이 무용 분야를 얘기하셔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위원님. 우리가 싸우려고 모이는 건 아니잖아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톤도 좀 낮춰 주시고요. 우리가 생각이 다른 것인데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막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같이 논의해서 생각이 다르면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논의를 하시자고요. 여기가 싸우고 대립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톤 다운을 하시고요. 성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국회에서도 보면 결국 개차반으로 싸움판이 되는 이유가 상대가 얘기하면 상대의 얘기를 집어서 얘기를 하다가 꼭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서로 하지 말자고요. 서로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의견만 얘기해 주시면 절대로 충돌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정갑영 위원** : 제가 보면 인원 구성 등을 봐서 참여할 사람은 참여를 하고 의결할 사람은 의결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갑영 위원** : 지금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몇 개 장르는 하시겠다고 하고 몇 개 장르는 안 하겠다. 추천은 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가시고요. 할 때는 또 하고요. 그다음에 의결이 부담스러워서 의결에 빠질 사람은 빠지고 할 사람은 해도 통과가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왕치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보고 잘되면 내년에 다 들어오는 것이고 잘 안되면 내년에 다시 바뀌어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숙 위원** :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요.

**정갑영 위원** : 글썸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의결에 참여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요.

**성기숙 위원** : 의결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지요?

**정갑영 위원** : 예.

**왕치선 위원** : 그게 1안이었어요.

**정병국 위원장** : 문제는 이런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러 성명서가 나오는 게, 이런 과정들의 논의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 우려의 소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을 관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위원도 선정하고 심의과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관리를 해 왔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는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화가 되었다고 지금까지는 인정을 받았는데요.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선입견일 수가 있어요. 저는 성 위원님의 열정 때문에 “들어가서 직접 해 보겠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입니다. 심의위원도 비상임 위원이 선정하고 본인도 들어가서 심의를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의결도 하면 그게 과연 객관화될 수가 있냐는 우려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괜히 우리가 열심히 일해 놓고, 다 공정하게 해놓고 그런 오해를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내가 되면 잘된 심사고 내가 안 되면 잘못된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 사람들은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히지 말자.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를 얘기해서 만들어 놓자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건데요. 조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A위원이 어떤 장르에 들어가서 직접 참여하고 결과를 냈어요. 정말 100% 객관화를 해서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전체회의에서 누가 반대의견을 내거나 다른 의견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제대로 됐다고 하면요.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 지적을 하는 위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심의를 했던 위원을 위해서도 안전장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저는 이렇게 대처될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생각의 차이죠. 심의를 하신 위원님이 위원회에 와서 심의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표결할 때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빠진다고 하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나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성 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다 설명을 해야죠. 다만, 예를 들어 12인 중에서 1인이 빠지면 12분의 1이잖아요. 참여를 한 것과 참여를 안 한 것의 표결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문화재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면 거기도 기초조사를 합니다.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세부 조사를 하고요.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의결할 때는 그 조사자들이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럼 저는 위원인데 심의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그 결정의 의결은 다른 위원들이 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위원이 심의와 의결은 통합으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것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니 대외적인 명분을 쌓기잖아요. 그러면 같이 통합으로 갔을 때 우려하는 건 뭐가요? 해 보지도 않고 외부적인 문제를 전제 하에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무용 분야에서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심의만 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윈도 그렇고 전통도 그렇고요. 심의한 위원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의결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책임은.

**성기숙 위원** : 아니죠. 의결이라 함은 모든 것이 마지막 단계에 통과되는 겁니다. 국회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 결과는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체 의결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책임지는 거지 그 장르별 개별 위원이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죄송한데요. 성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숙 위원** : 결과에 대한 것은 각 장르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겁니다.

**정병국 위원장** : 문제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기숙 위원** : 각 장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원회에서 각 장르 위원이 빠지고 누가 대변해서 그것에 대한 명분과 근거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정병국 위원장** : 어쨌든 간에 문제제기는 그쪽에다가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책임은 위원회가 지는 겁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법적인 사항을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하자면 위원회의 모든 중요한 의결에 대한 책임은 비상임이지만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을 다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위임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의를 했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고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회의를 하는 것이고요. 확정하는 회의를 통해서 법에서 주어진 말하자면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르별로 심의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든 간에 직원이 심의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책임을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정성을 중요시 할 것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말하자면 예를 들어 장르별 위원님이 다 하셔야 한다고 하면 혼자 하시면 된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할 겁니다. 굳이 민간위원부터 전담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데 다 못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수로 구성하면서도 장르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심의에서도 많은 책임을 지시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서 책임을 지는 법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삼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해관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도, “비상임위원이 어떤 장르 사업 심의에 참여하셔서 심의를 했을 때 이해관계와 관련한 법률의 충돌이 있습니까?”, “없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고 그 단체가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이것은 심의위원의 지위와 심사를 받는 사람의 이해는 없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러저러한 원리를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굳이 말씀은 안 드렸습시다만 예를 들어 무용 분야에 대해서 혹은 음악 분야에 대해서 혹은 다원 분야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어요. 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정되는 의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하셨던 말씀은 지금까지는 위원회 전체회의에 와서 바뀐 적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하면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의혹이나 사건과 관련된 단체가 들어와서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거나 혹은 금액을 결정했을 때 똑같이 나누거나 조정을 한 것이지 ‘부’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밖에서 보기에 예를 들어서 확정하는 회의의 권한은 위원님들이 가지시지만 그전에 위임된, 말하자면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셨다가 2차적으로 전체회의 의결정족수에 들어가는 부분도 그렇고요. 아까 변호사의 자문의견도 “이런 부분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공정성, 완전 책임도 아니고 완전 공정성도 아닌 그 부분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창작산실에 들어갔다고 하면 장르별로 공모된 사업은 창작산실 하나인데 심의는 7개 장르별로 나뉘지는데 창작산실을 의안으로 올릴 때 예를 들어 창작산실 문화일반분야라고 올리면, 또 두 번째는 창작산실 무용분야, 창작산실 연극분야를 올리면 처음에 창작산실 다원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배은주 위원님은 심의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빠지시고 나머지 11인이 심의를 하시면, 법에서 보면 8인 이상이 들어오셔야 하고 실제로 7인이 ‘가’, ‘부’ 결정을 하셔야만 통

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나 의결정족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해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그런 운영의 묘미를 살리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의는 들어가시되 최종적으로는 결정하고 확정하는 전체회의에서는 쪼개서 장르별로 하실 때 그 부분은 빠지고 가시면, 지금까지 반대로 인한 가부결정이 없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실무선에서 그동안 봐온 부분이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안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지금 저희는 전담심의위원회가 있고 조직도로 보면 그 위에 의결기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사인을 한다고 해도 저희 의결기구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의결기구에 와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해야 위원장님 이름으로 공모 결과가 홈페이지에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말씀하신 거라서 지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심의위원들의 사인은 사실은 저희 데스크에 올라오기 위한 사인인 것이고 결국 그 심의에 대한 결과는 의결기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완충 장치로 저희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마지막 의결에서 빠지는 게 저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의 말씀에 논리는 있어요. 맞는 말인데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명분 쌓기를 하나 하자는 겁니다. 명분을 쌓자는 것이고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지 거기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는 표결 결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만에 하나 대비를 위해 우리가 얘기할 거리는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성기숙 위원** :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대외적인 명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한 달 넘게 전담심을 가지고 논의하고 진통을 겪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진통 속에서 전담심의위원 참여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 통과를 시켜서 1차, 2차 회의를 한 것이고 하실 분과 안 하실 분이 나뉘었는데요. 안 하신다는 장르위원들이 자기 분야는 참여를 안 하고 남의 분야가 해 놓은 심의결과를 갖다가 의결한다고 했을 때 저부터도 의아스럽거든요.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가 글썽요. 저는 참여의 만도라든가 열의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담심의제에 위원이 참여한다는 건으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자료 요청도 해 놓은 상황이고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용계에서 2024년도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특정 1개 단체가 5개 사업을 해서 5~6억 원을 받게 되고 특정 협회가 상당한 지원금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결과치를 보면 너무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건강한 풍토를 조성해야 하는 게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가시밭길에 십자가까지 지고 그런 부분을 감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충원 명단을 드렸을 때도 저는 장르 안배, 연령, 성별 그다음에 지역까지 고려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전에 명단을 낸 34명에서 11명으로 축약해서 드렸는데요.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데 지금 무용 분야가 불공정하게 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서 그것이 다른 분야까지 작동될 우려까지 하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을 자꾸만 반복하지 마시라니까요.

**성기숙 위원** : 아니요. 김진각 위원님께서도 심의를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본다고 하셨어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그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다 거수기일 수는 없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저는 아까 정갑영 위원님 말씀처럼 전담심의를 참여하겠다는 위원들을 존중해 주셔서 심의와 의결을 같이 하겠다는 위원, 안 하겠다는 위원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원칙은 없고요. 위원회를 하는데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배은주 위원** : 제가 2023년인가요? 어떤 심의위원이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해연도에 공모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신중하게 보고 의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어떤 심의제도가 들어온다고 해도 의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2번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심의도 하고 여기에 오셔서 의결하는 것까지 위원님은 원하는 거죠?

**성기숙 위원** : 저는 그게 전담심의제의 기본적인 취지와 목적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심의부터 모니터링, 결과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게 전담심의제 내지는 책임심의제의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심의만 해 놓고, 아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의결이 되었을 때, 의결권을 가졌을 때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병국 위원장** : 취지나 그런 건 다 알고요. 성 위원님 다 알아요. 다 알고 저는 성 위원님이 직접 심의까지 하겠다는 의지도 다 압니다. 다만, 우리의 뜻대로 객관화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직접 참여까지 해서 일해 놓고 나중에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거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전담심의 적용 사업이 있잖아요. 리스트가요. 제가 뭐를 하겠다는 답을 아직 안 준 상황입니다. 전담심의 적용 사업이 예를 들어서 6개라고 하면 거기에 일부만 할지, 다 할지에 대해 결정도 안 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논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요.

**정병국 위원장** : 성 위원님.

**성기숙 위원** : 근본적으로 심의와 의결을 하겠다는 위원들에게 설득을 해 주셔야 해요.

**정병국 위원장** :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단 전담심의를 하기로 했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전담심의만 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제 말을 이해를 안 해주시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미 이런 논의 과정에 대해서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성명서가 우리한테 와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한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선정된 사람들은 잘된 심사라고 하고 떨어진 사람은 다 문제가 있는 심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지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걸고 들어올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전담으로 가서 마음대로 자기들끼리 한다.” 라는 소리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이미 다 결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다 하셨으면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까 바뀐 사례를 들었지만 미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캐치가 안 되었던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일이 있었다거나 하는 어떤 조건이 안 되는 것만 해서 고쳐졌다는 거죠. 다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안전장치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무용분야의 위원이기 때문에 내가 전담심의를 한다.” 그러면 무용은 무용대로 하고 미술은 미술대로 하지 위원회를 왜 구성해서 전체회의에서 이런 절차를 밟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해당 장르의 위원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명분 쌓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것을 해서 성 위원님의 의도나 이런 게 왜곡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기숙 위원** : 2025년은 제가 단연코 2024년보다 무용분야는 훨씬 공정한 결과치가 나오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무용분야에서 최소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장의 문제제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원해서 탈락하는 분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었고 그것을 최소화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무용분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무용분야에 대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것은 다른 장르에서 성명서가 이미 몇 건이 들어왔어요.

**성기숙 위원** :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배포를 해 주셔서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게 들어오고 개별적으로 진화가 와서 면담을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도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위원회 의결권이, 만약 장르 심사를 한 위원이 의결권이 없고 심의만 했을 때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죠?

**정병국 위원장** : 위원회가 하죠.

**성기숙 위원** : 위원회가 하는데요. 위원회 누가 하느냐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제가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무용분야를 위원장님께서요?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제가 하는 것은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것어요.

**성기숙 위원** : 문제제기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 설명은 위원님이 제일 잘 아니까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그 설명은 제가 심의만 하고 의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장** :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설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정병국 위원장** :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했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의결에 참여하고 안 하고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것은 당장 결론을 안 내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당장 결론을 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위원으로서 고유권한인 의결권을 이렇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차별적으로는 아니고요. 위원님, 차별적으로는 아니고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차별적인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자꾸만..... 성 위원님을 언제 차별했어요? 왜 차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이게 언제까지 결정되어야 하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사실 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 공모사업 결과 발표 전까지만 개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12월 말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12월 말이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빠르면 12월 중순 전에만요.

**정병국 위원장** : 11월까지 한번 더 논의하고 수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고안건인 2024년 공모사업 비상임위원 참여 세부 방향 논의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일단 접수는 하되 비상임위원 심의 참여사업 심의결과에 대한 전체회의 의결 참여 여부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 2024년 경영전략소위원회 7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경영전략소위원회 7차 회의는 간단합니다. 별건 아니고 11월 1일 국회 토론회 관련 건이고요. 자료는 45쪽과 46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발제는 김진각 위원께서 기금재원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하면서 토론자들 4인이 붙고요. 그다음에 좌장께서 정리를 해 주실 것이고요. 이것에 관한 토론자와 좌장 선정은 철저히 재정분야, 세무분야, 기금정책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술분야에서도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김성훈 안무가가 토론자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건데 김승수·박대출 의원 공동주최로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45쪽과 46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금안정화를 위해서 이번에 어렵게 김승수 의원님과 박대출 의원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신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오랫동안 논의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향후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모아서 함께 지혜를 모아간다고 하면 좋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는데 썰렁하면 안 되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가능한 그 날 참여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은 조치를 해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의견 있습니다. 경영전략소위원회 위원이 되고 나서 2번 정도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번은 대면 참여였고 한번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안 돼서 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기금재원안정화 주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제가 사무처에 여쭙봤을 때 “현재의 기금을 가지고 위원회가 몇 년을 버틸 수 있는가?” 라고 했더니 2년 정도 버틸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로서 공정한 지원심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기구나 재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력을 앞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논하지 않고 경영전략소위원회에서 제가 대면으로 회의할 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김진각 위원님께서 1인 발제자이신데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어느 세미나나 두 분 정도로 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좋고 김진각 위원님은 내부 위원이기 때문에 외부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듣는 게 기금재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나 했는데 한 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아쉽고요. 그래서 김진각 위원님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하고 의원들의 정책자료집에 실려서 배포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위원회의 공식 입장으로 대부분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님 발제문이 위원회의 검토 내지는 의견수렴과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위원 자격으로 관심이 있어서 논문 요청을 드렸는데 편집 중이라고 하는데 사무처에서 편집하시나요? 이것은 업체에서 해 주셔야지 논문 발제자가 편집까지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속하게 논문을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김진각 위원** : 논문은 아니고요. PPT자료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가 비상임위원 자격으로 발제하는 게 아니고 기금을 연구했던 사람으로 기금 연구자 입장에서 발제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논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기숙 위원** : PPT자료를 주세요.

**김진각 위원** : 편집은 수정할 게 있어서 넘겼고 편집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끝나면 다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몇 차례 이것을 해 봤는데요.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이걸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쉽지는 않지만 계속 두드려야죠. 뭔가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고 “기금 안정화를 해 달라.” 라고 얘기를 해 봐야 소용이 없고 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회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고 또 하면서 명분도 축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 2024년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6차 회의 결과에 대해 김진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회의 안건은 크게 2가지입니다.

내년도 예술후원분야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30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쓰느냐? 예술후원 관련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여기에 쓸 필요가 있다는 하나의 안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아르코웹진 ‘에이스퀘어’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인가? 라는 안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술후원분야 사업들이 새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사업비가 40억 정도 추가 확보가 되면서요. 그래서 그중에 나온 안 중에 하나가 지역 중심의 예술 그리고 지역의 기업이 서로 매칭해서 지역예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있다는 안이 사무처에서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만 이게 지역문화재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도 있고요. 사실 지역문화재단이 이런 중앙 정부의 후원 관련 예산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될 것인가? 그래서 만약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지역문화재단 외에 지역의 어떤 기업 쪽과 연계해서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따진 다음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 후원주간인데요. 내년 9월에 일주일 동안, 예술위원회의 후원 관련 행사가 산발적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범국민 참여형 문화예술 후원주간으로 통합해서 후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자는 취지로 후원주간을 설정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후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면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행사를 하려면 장소를 섭외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은 코엑스로 예정되어 있지만 DDP나 여러 장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문화지표개발은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아르코웹진 ‘에이스퀘어’인데 이것도 지난 회의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편집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편집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는데 정책 담론에서 이슈 중심으로 확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편집위원회 보다는 소위원회와 사무처가 실질적인 편집위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요즘은 이미지나 영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자는 정도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문모 위원 :**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기보다 간단한 일은 아닌데요. 사업규모가 커진 게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1-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했고요. 1-2번 같은 경우도 쪽 얘기를 했는데요. 소위원장님께서 짧게 얘기를 하셨던 문화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전 소위원회 회의에서 김○○ 차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는 통계조사로, 매년 문화예술 관련 통계지표 하나를 통계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그 밑으로 가면 60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했었는데 그게 빠져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용역이 매년 조사하는 것을 그동안 1년마다 하던 것을 3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전처럼 가는 것으로 되기는 했지만 제가 통계를 상세하게 들어봤더니 60개 정도에서 10개나 15개 정도는 현시점에서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김 차장님이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해서는 그분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물어봤더니 통계 자체가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로만 구성이 돼서 그것을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빠진 것도 많고 일관성이 없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통계 자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각 지표나, 특히 웹진 같은 것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콘텐츠진흥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담지만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발표를 하거든요. 이런 문제도 콘텐츠의 독특성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통계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 하

나하고요. 그다음에 1-3번의 문화지표개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문화예술분야 소셜 임팩트라는 얘기가 문화예술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견을 대외적으로 받아 조사를 했더라도 검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3억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대단히 큰 규모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것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수정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실무자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하는 심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 차장님이 혼자 일을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있는데 사전에 이메일로만 적기보다는 이런 배경에 대해서 지적인 위원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회의를 개최할 때 간단하게 끝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물어 보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은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위원들과 소통을 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김○○ 차장이 신청을 해서 일정 부분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원 승인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요. 어느 범위까지인지는 제가 아직 논의를 못 했습니다만 환경은 나아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전에 관련된 논의자료들을 미리 드리고 메일로 드렸다고 하더라도 뭐가 논점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듣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보고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후원의 밤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다 연락이 갔죠? 한 분도 참석을 안 해서요.

**구문모 위원** : 서운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서운한 게 아니라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그런데 다행히 상당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손열음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했는데 그것도 좋았지만 본인이 받는 개런티를 다시 후원을 했고요. 화가들한테 도네이션을 받아서 경매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수익금이 1억 5,000만 원이 나왔고요. 현장에서 모금을 한 게 손열음 피아니스트 후원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그림을 셀럽 화가들한테 요청했고 얻기 힘든 그림을 얻었거든요. 그 대신 그림 기본값은 주고 화랑이 가져가는 비용을 우리가 받는 형식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남겼는데요. 어떤 명분으로 얻었느냐 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국내외 청년 작가들을 공모해서 한국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그림을 주신 선생님들이 멘토가 되고요. 올 연말에 공모할 건데 내년부터 입주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작품을 내년 9월에 별도 부스를 마련해서 이것을 오픈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데뷔 무대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미라 위원님 어때요? 굉장히 관심 있는 레지던시가 되겠죠?

**김미라 위원** : 레지던시는 어디일까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작가가 있는 데에 와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언론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취지도 좋고요. 그런데 2억 원 가량 모금이 되었잖아요? 그림 2억 원 가량의 후원금은 나중에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정병국 위원장** : 지금 말씀드린 그것을 명분으로 후원금을 거둔 겁니다. 인바운드 레지던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림 경매를 했고 5,000만 원은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음악 쪽으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 아트 포레스트 페스티벌 수익금은 꿈발극장 펀딩 5억 원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건 바이 건으로 기증을 하는 거네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래서 공표를 해야 우리가 명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후원을 하면 우리가 매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하면 매칭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세계적인 발레축제로 조금 더 새롭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 섭외를 하는 겁니다. 기업이 지정 기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발레축제를 하는데 세계적인 발레리노, 발레리나를 선정해서 상금을 1억 원을 준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한국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것은 예산을 갖고 잘 안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몰아가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이강숙 총장님이 계셨는데 이강숙 홀이 있거든요. 거기 리모델링을 하면서 좌석 기부를 200만 원씩 정액으로 했는데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꿈발극장도 취지가 너무 좋잖아요. 혹시 좌석 기부를 정액으로 하고 본인이 문구를 한 줄 정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은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듯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11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잠깐 한 가지만요. 제가 기획조정팀에 지난번 회의 때 안전으로 올린 3개 중에 2개가 보류되었잖아요. 왜냐하면 극장 대관심의 참여의 건과 소위원회 추가 구성 건인데요. 다음 회차에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주십사 했는데 회의자료에는 빠진 것 같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회의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발의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회차 안전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극장에서 홍승욱 팀장님은 안 오셨네요.

**정병국 위원장** :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회의에 안전으로 올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왜냐하면 지난번에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요. 대관 심의가 11월에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차에 논의하면 참여가 불가능해서요. 혹시 같이 소통할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당연하죠. 바로 전화 연락을 드려서 협의를 드리라고 하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안건에는 넣지 않았는데 메일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문모 위원 : 아까도 프로젝트 소셜 임팩트로 3억 원 정도를 제안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자꾸 제안해도 데이터가 없으면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문화예술위원회 통계 인프라를 갖추는데 예산을 배분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야 콘텐츠가 많이 나오니까요.

정병국 위원장 :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구문모 위원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누구 담당이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 담아야 한다고 하면,

정병국 위원장 : 아니, 3억 원이 여기에 책정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 담당이 누군지를 구 위원님께 말씀드리어서 구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다음번 보고 안건으로 올리라고 하세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알겠습니다.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11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9일 나주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말씀하실 분은 없으신가요?

송시경 사무처장 :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하고요. 김○○, 류○○ 관련된 사안인데요. 뭐냐 하면 성희롱 관련된 사람이 풀에서 배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너무 계속해서 배제를 하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률에 대한 위반인 경우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그분이 살인을 저질렀는지 사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예술계에서 이슈화 돼서 위원회에서 받아들였던 부분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 예술계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든 지원사업이든 배제를 하라고 해서 지침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성희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희들이 정보로 듣지 직접적으로 요청해서 들을 수 있는 이해관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택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풀에 들어가서 넣느냐 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통상 보면 어떤 것이냐 하면 형 실효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말소시키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통상 말소시키는 것으로 해서 많게는 10년까지 예를 들어서 형이 집행 종료된 후 2년에서 10년이 지나면 해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을 사무처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안을 내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렇게 하세요. 사전에 노조위원장께서 발언을 하실 게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 인가요?

**김효은 노조위원장** : 일단은 성기숙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릴 것은 고충접수를 받은 건인데요. 이것은 별개로 말씀드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 전담심의제도에 위원님들이 참여하게 되시면서 심의를 준비하는 프로세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각자 생각하는 바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년까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추천권, 심의 의결권이라고 하는 2가지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말 그대로 프로세스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를 하거나 관리·감독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신다고 이해하면서 업무를 추진했었는데요. 이번에 위원님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사실 해 보고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더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심의위원 추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저희 조합원들은 만약 위원님들께서 심의권을 가지고 계시면 의결 전에 이미 지원결정 ‘가’, ‘부’ 까지 결정이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권 자체를 갖게 되는 것이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심의위원 추천권이나 의결권은 배제가 되지 않을까 했어요. 왜냐하면 심의 시스템은 공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어떤 장치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너무나 많이 바꾸게 되면 무리가 오니까요. 그래서 공정성이 저해될까하는 기우는 접어두더라도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예술현장에서 받아들일 때 추천권, 심의권까지 가지고 가시니까 만약 전담심의제에 참여하시게 되면 의결권은 안 가지시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공정성에 논란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제도 시스템을 처음부터 크게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 운영되어 오고 있던 권한의 분리 등을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자료 요청 건이 왔는데요.

**성기숙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음 회차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거니까 그렇고요. 제가 하나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2개월째인데요. 나주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의견을, 공간이 주는 메시지도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노조위원장님께 노조 조합원의 구성, 현황 그리고 기능과 역할, 그동안 활동보고서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노조와 소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김효은 노조위원장** : 저희 노보가 3호까지 나왔는데 1호, 2호, 3호를 다 드릴게요.

**성기숙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보고 궁금하면 추가로 질문을 드릴게요.

##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11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11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나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3차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회의 종료)